

만성 혈액투석 환자에서 Chloramine에 의하여 집단적으로 발생한  
용혈성 빈혈에서 혈장 비타민 E의 농도 변화

고려의대 내과  
장미경, 위경소, 권영주, 표희정

비타민 E는 강력한 antioxidant로서 chloramine 등 oxidant에 의한 용혈현상이 발생할 때, 그 혈장농도의 감소가 예상된다. 연자들은 chloramine에 의하여 만성 혈액 투석 환자에게 발생한 집단 용혈성 빈혈에서 수원지를 교환한 전후에 혈색소 농도, 교정 망상 적혈구 수 및 혈장 비타민 E의 농도를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환자는 총 34명으로 남자 17명(38.9±15.9 세), 여자 17명(47.1±13.4 세)이었다.
- 2) 수원지 교환 전후의 혈색소 농도는 각각 5.36±1.06 g/dl, 7.22±1.45 g/dl로 수원지 교환후 의미있게 증가하였다(p < 0.0001).
- 3) 수원지 교환 전후의 교정 망상 적혈구수는 각각 4.56±2.00 %, 1.75±0.97 %로 수원지 교환후 의미있게 감소하였다(p < 0.001).
- 4) 수원지 교환 전후의 비타민 E는 각각 2.40±4.0 mg/l, 5.37±7.04 mg/l로 수원지 교환후 의미있게 증가하였다(p < 0.01).

이상에서 용혈중 혈중 비타민 E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고 만성 용혈에 대한 비타민 E의 완화 내지 치료 효과에 관하여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CAPD 환자에서의 두번째 질식분만 1예

연세대학교 원주의과대학 내과학교실, 산부인과학교실\*  
김영경, 최승욱, 신승준, 박성진, 홍에라, 이광훈, 정인배\*

말기신부전증 환자는 성호르몬의 분비이상이가 있어 월경 및 배란장애, 성욕감퇴등으로 임신율이 낮으며 임신 후에도 자연유산이나 사산율이 높아 성공적인 임신 및 출산은 매우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CAPD 환자에서는 1983년 처음으로 Kioko등에 의해 성공적인 분만이 보고된 예가 있었고 국내에서는 1992년 최등이 CAPD환자에서 임신 37주에 정상 여아를 질식분만하였던 예를 보고하였는데, 이번에 동일한 환자에서 임신 33주에 질식분만으로 두번째 아이를 출산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증례 : 27세된 여자로 복통 및 배출액의 혼탁을 주소로 내원하였다. 환자는 3년전 임신 32주에 1.7 kg의 남아를 질식분만 하였으며 당시 본원에서 말기신부전증으로 CAPD를 시행받았으며 1년후 임신 37주에 복막투석 환자로써 국내 처음으로 정상여아를 질식분만하였다. 내원 6개월전에 두달간 생리가 없어 검사한 결과 세번째 임신이 확인되었고 환자는 1.5%, 2 L 투석액으로 하루 4회 교환하며 별 문제 없이 지내던중 내원일 새벽부터 투석액이 혼탁해지고 복통이 발생하여 내원하였다. 내원 당시 환자는 혈압 160/100mmHg, 맥박 98회, 체온 36C였으며, 복부에 전방적인 직접 및 간접 압통이 있었다. 혈액 검사상 Hg 10.4g/dl, Hct 30.1%, WBC 13,770/mm<sup>3</sup>, BUN 32.6mg/dl, creatinine 4.7mg/dl였다. 투석액은 혼탁하였으며 WBC 10,560/mm<sup>3</sup>(PMN 100%)였으며 균검사상 S. aureus가 동정되었다. 초음파 검사상 태아는 임신 28-29주로 체중은 1kg정도로 추측되었다. 항생제는 반코마이신과 3세대 세파계를 투여하였고 조기진통이 동반되어 진통억제제를 사용하였다. 입원 2주경부터 복막염은 호전되었고 조기진통도 빈도가 감소되어 진통억제제를 경구 투여하며 지내던중 25일째 양막이 조기파열되어 유도분만을 시도하여 임신 33주 1일에 1.28 kg의 남아를 질식분만하였다. 신생아의 Apgar score는 1분에 7점, 5분에 8점으로 상태는 양호하였고 동반된 기형은 없었다. 산모는 자궁경부 파열 이외에 별다른 합병증은 없었고 복막염에서 완전히 회복되었으며, 신생아는 10-50%의 성장 곡선을 보이며 특별한 문제없이 성장하고 있다.